



[산업]
현대·기아차
유럽 전기차 충전 업체
지분 20% 확보
08



Life

[헬스]
이대서울병원
국내 첫 임상통합상황실
위급상황 신속대처
L2



환경 지키고... 소외이웃과 추억 만들고...

‘친환경’·‘상생’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 만든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롯데호텔

롯데호텔은 ‘지속가능성’과 ‘상생’을 기반으로 사회 곳곳에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환경을 지키고, 지역 사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킨다

롯데호텔은 친환경 캠페인인 ‘Re:think k’를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명인 ‘Re:think k’에는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말 것(Refuse), 쓰레기를 줄일 것(Reduce), 반복 사용할 것(Reuse), 재활용할 것(Recycle)을 뜻하는 ‘4R’ 활동과 자연을 다시 한 번 생각하자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롯데호텔은 플라스틱, 비닐 등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 식음과 객실, 환경관리 프로세스, 마케팅 등에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했다.

베이커리를 포함한 모든 식음업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교체했으며 일회용 포크, 나이프 등도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 플라스틱 및 비닐 폐기물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10월경에는 기존 박스 패키지를 모두 비닐 코팅이 없는 종이 박스로 변경하고, 비닐 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패키지 변경 작업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L7의 기존 플라스틱 칫솔이 밀짚으로 만든 친환경 칫솔로 대체된다.

착한 브랜드와 협업한 이색 활동도 진행했다. 지난해 라이프스타일 호텔 L7은 페트병에서 추출한 실로 가방을 만들어 화제가 된 ‘플리츠마마(PLEATS MAMA)’와 함께 클러치 백을 제작해 다양한 패키지 및 마케팅 상품으로 활용했다. 환경을 생각하고 실용성까지 갖춘 클러치 백은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이자 고객들도 캠페인에 함께 참여 할 수 있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롯데호텔의 친환경 활동은 꾸준히 지속돼왔다. 2013년부터 사단법인 미래숲과 공동 진행해 온 친환경 프로젝트 ‘핑크 네이처(Think Nature)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황사의 주요 발원지인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서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에 동참해 함께 나무를 심기도 하고, 객실 내 침대 시트나 수건을 매일 세탁하지 않고 재사용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그린카드’를 통해 절감되는 비용을 매년 미래숲에 기부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6년 ‘Lotte Carbon Mana



친환경 캠페인 ‘리띵크’ 진행
플라스틱·비닐↓ 친환경 제품↑
에너지 절감비용 미래숲에 기부

콘서트 열어 다문화가족 초청
요양원 찾아 어버이날 행사도

L7이 플리츠마마와 함께 전개한 친환경 활동.



L7호텔은 지난 8월 필굿뮤직과 함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드림 루프탑 풀 콘서트’를 개최했다.



롯데호텔과 함께하는 ‘mom’편한 힐링타임-추억의 밤’을 열고 송파구 관내 취약계층 450여 명을 초청했다. /롯데호텔

gement System(LCMS)’을 전 사업장에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연 2회 전 체인 호텔의 환경 심사를 통해 개선 활동도 진행 중이다.

롯데시티호텔 구로, 대전, 울산, 명동과 L7명동, 강남, 홍대에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력을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가능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

롯데호텔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지난 8월 L7호텔은 필굿뮤직과 함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L7호텔 X MFBTY의 드림 루프탑 풀 콘서트(Dream Rooftop Pool Concert)’를 개최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40여 명과 150여 명의 관객이 함께 했으며, 당일 수익금은 다문화 가정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지난 7월에는 송파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신아원에서 재능기부 사회공헌활동 ‘신아해피베이커리 축제’를 진행했다. 롯데호텔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롯데봉사단을 비롯해 롯데호텔 김정환 대표이사, 신아원 권혜경 대표이사, 박성수 송파구청장 등이 참석해 맛있는 나눔에 동참했다.

신아원은 롯데호텔의 사회공헌활동 브랜드 ‘희망드림터’ 협약을 최초로 체결한 곳이다. 2015년 첫 협약 체결 이후 롯데호텔 사롯데 봉사단은 신아원을 위해 해피박스, 벽화봉사 및 치아치료봉사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고용과 직업재활훈련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신아원의 ‘신아해피베이커리’와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지역 어르신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다. 올해는 롯데호텔제주와 서울이 봉사활동에 나섰다.

롯데호텔제주는 ‘희망드림터 4호점’인 성이시들 요양원에서 사롯데봉사단 20여 명과 함께 어르신 80여 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해당 활동은 지난 2014년부터 어버이날마다 꾸준히 진행돼 왔다. 사롯데봉사단은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마음을 나눴다. 식사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후식 등 30여 종의 메뉴로 구성된 뷔페로 차려졌다.

롯데호텔서울은 지난 2015년부터 인연을 맺은 ‘희망드림터 2호점’ 성가요양원에서 사롯데봉사단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취약계층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시그니엘 서울과 롯데호텔월드에서 지난 6월 ‘맘(MOM)편한 힐링타임-추억의 밤’을 열고 송파구 관내 취약계층 450여 명을 초청해 호텔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L

